

A photograph of a deer with antlers crossing a paved road. In the background, a dark-colored car is driving away from the viewer. The scene is set in a wooded area with trees and foliage visible on the left side.

로드킬 자동 신고 시스템

“ Auto-Repo ”

Team 골든타임키퍼

문제진단

로드킬은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위험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드킬”

“2차 사고”

“미처리”

빈번한 발생

- 30분에 1마리 꼴로 로드킬 발생
- 2012년 5534마리 대비 5년 새 3배 증가
(2017년 기준 15436마리)

⇒ 로드킬 사건의 발생 수는 증가추세

로드킬 2차 사고 위험

- 동물과의 직접 충돌
- 사체를 피하려다 2차 사고 위험
- 인명사고

⇒ 2차 사고의 원인 및 유형은 다양

며칠간 미처리

- 신고가 되지 않아 2~3일이 지나도 방치되는 경우가 존재
- 병원균 확산, 생명 존엄성 문제 발생

문제진단

하지만 낮은 신고율로 인해 통계 자료 수집이 어려워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로드킬, 신고 포상금 제도 있어도 '유명무실'

로드킬 사고 급증... 신고 저조

[국감브리핑]환경부, 로드킬 통계자료 '허술'

되풀이되는 '로드킬' 근본대책 세워야

송옥주 의원 "환경부 로드킬 통계, 실제와 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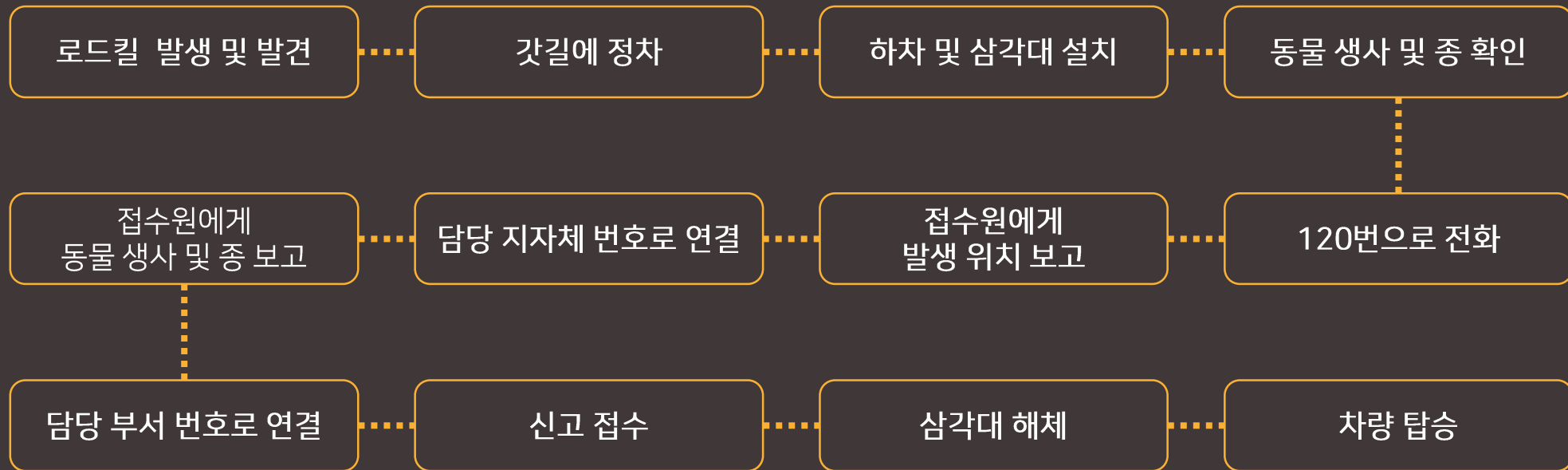
로드킬 급증... 피해 신고 저조

R]'로드킬' 빈번...대책은 미흡

주의! 로드킬당하는 동물 수, 추정치보다 많다

문제진단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신고과정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로드킬을 신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15분

”

해결방안

로드킬 사고 신고 및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AI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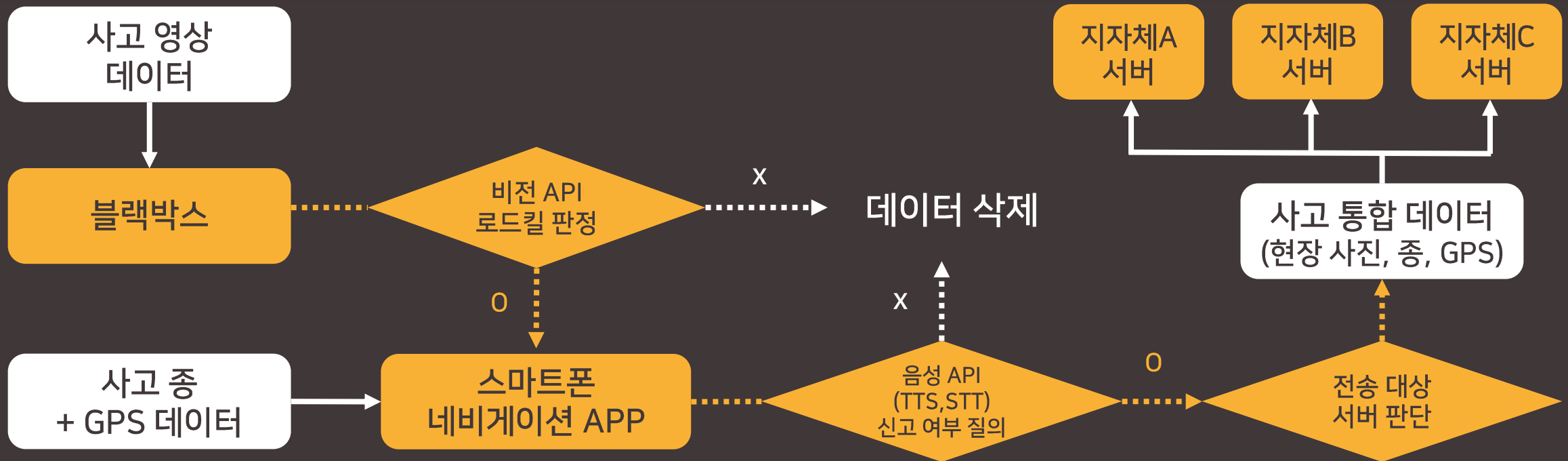
로드킬 자동 신고 시스템



“ 로드킬 사고 발생 시 현장을 비전으로 판독하고
음성 인식을 통해 자동 신고해주는 시스템 ”

해결방안

비전 API를 활용한 로드킬 판정 후 TTS API를 통해 정부 서버에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시스템



기대효과

운전자들의 신고 소요시간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로드킬 데이터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줍니다.



신고 소요 시간 감소

- 복잡한 신고과정의 단순화
→ 신고에 필요한 별도의 소요시간 제거

현재의 신고과정은 12단계로, 약 10~15분 소요



데이터 수집 소요시간 감소

-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음

현재, 현장조사원이 현장에 파견하여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APP을 이용하여 직접 신고

기대효과

2차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전문적인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른 분야로의 확장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사고 위험 감소

- 도로 위의 사체를 빠르게 처리 가능

현재는 2~3일이 지나도 미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

전문적인 예방 및 대책 마련 가능

- 신고 과정의 단순화 → 신고 건수 증가
- 로드킬 사건의 데이터 수집 증가
- 정확한 데이터 수집 가능

현재 낮은 신고율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
전문적인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음

높은 확장가능성

- 다른 분야에 손쉽게 적용 가능
(낙석, 싱크홀 등)
- 자율주행 차량에 접목될 수 있는 모듈

사업화 방안

